



대부도, 갯벌이 아름다운 생태보물섬
람사르 습지로 등록,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다

관련기사 12~13면

02

안산시, 해양레저·관광 산업 신성장 거점

안산시 서해안권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이로써 평택에서 이어지는 서해안 포트 비즈니스 벨트 조성이 가능해졌다.

04

생생도시 안산, 생활 속 변화들

은행나무 열매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지만 밟았을 경우 지독한 냄새를 풍겨 시민들이 걸을 때 상당히 불편했다. 이를 막기 위해 안산시가 나섰다.

10

우리산업을 이끄는 안산스마트허브-(주)써피텍

20년 이상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인쇄회로기판 금 도금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주)써피텍의 이희범 대표이사를 만났다.

12-13

대부도, 갯벌이 아름다운 생태보물섬 최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대부도 갯벌은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될 정도로 높은 곳으로 효율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16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

김세중 작가가 탄생시킨 대부분의 그림은 하늘과 바다처럼 무한히 열린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공존을 그리는 김세중 작가의 세계를 방문해보자.

‘안산지방법원 승격 추진’을 응원해 주세요!

안산지방법원으로 승격 되면?

1. 법원 민원사무 처리인력의 확충으로 법원사무의 처리가 빨라집니다.
2. 행정소송,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모두 안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3. 법원·검찰청 규모가 커지면서 인근 지역상권이 활성화 됩니다.

※ 서명운동 참여 안내 : 시청, 구청,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안산지방법원승격범시민공동추진위원회 / 안산시

안산시 서해안권, 해양레저 · 관광 산업 신성장 거점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반영

기존 평택 · 현덕지구와 연계한 '서해안 포트 비즈니스 벨트' 조성 가능



대부도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조감도

안산시 서해안권이 해양 · 레저 · 문화 · 생태 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안산시는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경제자유구

역위원회에서 안산시 서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년~2027년)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서해안권은 해양레저 · 관광, 친환경 간척농지, 생태환경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기존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평택BIX(Business&Industry Complex), 현덕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번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평택부터 안산까지의 경기만 일대를 해양레저 · 문화 · 생태 산업의 거점으로 삼는 '서해안 포트(port, 항구) 비즈니스 벨트' 조성 의지가 반

영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단기, 중기, 장기로 기간별 세부 목표를 마련 ·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통해 '개발 위주'에서 '혁신 성장 거점'으로 정책에 변화를 주며,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 베드(시험 공간)'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진 체계 선진화 등 4개 중점 분야와 12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을 처음으로 2008년 황해, 대구 · 경북, 2013년 동해안권, 충북 순으로 현재 총 7개 구역(281km²)이 지정되어 있다.

◇ 문의 : 안산시 도시계획과(031-481-2373)

내년 예산 2조2천166억 원 편성

올해 보다 711억 증액

교육 지원, 도시 재생, 일자리에 집중

안산시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711억이 늘어난 2조2천166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무상급식 교육 지원을 포함해 도시 재생, 청년 · 노인 일자리 사업, 출산 장려, 아동 수당 등 민선 7기 정책 의지와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주민 복지 속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올해보다 3.32% 증가한 총 2조2천16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89% 증가한 1조4천324억 원, 특별회계는 1.07% 감소한 7천842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과 금리 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 등 국내외 경기가 유동적인 것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가장 시급한 중요 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했다.

예산은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출산 장려금, 아동 수당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2천326억 원 ▲안산스마트허브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186억 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립 기반을 위한 지원에 3천851억 원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등 교육 경비 지원에 511억 원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환경 개선, 원활한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보호에 738억 원 ▲안산읍성 문화재 정비 등 문화예술 진흥과 체육 활성화에 627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히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경기도체육대회 예산도 확보해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안산시의회에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0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문의 : 안산시 예산법무과(031-481-2806)

2018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 '성황'

"어서 와! 창업은 처음이지?"...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출발'



11월 1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2018 서피아(SUFIA, Start Up United Festival In Ansan)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이하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열렸다.

안산시는 올해 3월,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양대 · 안산대 · 경기테크노파크 ·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스트 비아이(POST-BI) 센터와 협약을 맺고 각 기관의 우수한 시설과 장비, 창업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열린 이번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창업을 꿈꾸거나 도전 중인 청년들에게 안산시 창업지원 정책을 알리고, 창업에 유용한 특강을 통해 성공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안산 지역 모든 대학, 창업 지원 기관들과 안산시청년정책위원회가 함께 기획했다.

1부에서는 개막공연으로 선배 창업팀 '디스이즈잇(대표 김지윤)'이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창업스토리를 들려줬다. 디스이즈잇은 LED 조명과 춤을 이용한 공연예술 기업으로 지난해 연매출 5억 원, 올 상반기에 3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하고 있는 청년큐브의 대표기업이다.

김지윤 대표는 3-3-3법칙을 소개하며, 준비기간 3년을 기다릴 것, 매출이 일어나는 3년을 버틸 것, 세금 · 인건비 · 편

안함이라는 3가지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2부는 강연과 토크콘서트로 채워졌다. 임현재 비즈온에듀 대표가 '업계를 선도하는 유튜브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뒤 전문 컨설턴트와 창업 지원 기관 담당자들이 안산시의 창업 정책과 창업 지원 기관을 소개했다.

부대행사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안산시 입주기업 홍보, 채용박람회, 창업마켓 등도 함께 열렸다.

마지막 3부에서는 7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준호 크리에이터가 '1인 미디어 창업 스토리와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했고, 창업팀과 예비 창업자들은 강연자의 경험 속에서 자신들의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구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가 구축한 창업 벨트를 민간의 우수한 자원들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창업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에게 이번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안산에서 창업하기 좋은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산업정책과(031-481-2851)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 개최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관·단체·시민의 공감대 마련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관·단체·시민들이 ‘에너지 비전 2030’의 행사를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11월 15(목) 오후 2시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에너지 분권 확대를 주제로 ‘안산 에너지 비전 2030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안산시가 주최·주관하고 한국서부발전(주),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안산 에너지 비전 2030’과 연계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각 기관, 단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도·시의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기업체, 에너지 관련 단체, 주민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에너지 전환과 분권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시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날 에너지 전문가 발제는 김태균 안산시 녹색에너지과장의 ‘민선 7기 에너지정책 추진방향’, 이유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력방안’, 김성욱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의 ‘안산시 에너지 자립과 전환을 위한 제안’이었으며, 에너지 분야 비전문가도 에너지 정책흐름을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명쾌한 설명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발표했다.

또한 이창수 안산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재각 에너지정책기후연구소장, 윤기석 삼천리 공학박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지역에너지 전환, 분권 확대’에 대한 분야별 에너지 흐름을 짚었다.

이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을 제시하며 에너지 지방화 시대를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에너지 비전 2030을 전국에서 최초로 발표했으며, 2030년이면 에너지 자립도시가 될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린다”며 “에너지 비전 2030’이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에너지로 자립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색에너지과(031-481-2927)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단원보건소, “주민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진다”

아파트, 대형마트, 재래시장 찾아다니며 ‘이동 건강상담소’ 운영



안산시 단원보건소에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기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 상담 및 대사중후군 검진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아파트, 대형마트, 재래시장, 919취업광장, 산업장 등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일(금)은 이마트 안산고잔점, 7일(수)은 대우푸르지오 8차 아파트, 8일(목)은 홈플러스 안산고잔점, 12일(월)은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동 건강상담소’는 무료로 운영되며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해 1:1 맞춤형 상담으로 운영된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검진을 한 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건강관리 수첩을 제공, 1달에 한 번씩 자신의 검사 결과를 기록하며 변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하고, 실천 일기를 매일 기록하게 해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호수동에 사는 주민 B씨는 “매일 호수공원을 한 바퀴씩 돌고 있어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찰 정도로 뛰거나 땀이 약간 날 정도로 몸을 움직여줘야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들어서 내일부터는 그렇게 실천해봐야겠다”고 했다.

간호사 권수연 씨는 “자신의 혈당이 높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건강 체크를 받아본 후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주민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 보람이 크다”며 환하게 웃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여러 개의 질환을 가진 복합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건강 상담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단원보건소(031-481-3393~9)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안산시 & 경기도 “함께 찾아요. 내 일자리!”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잡아바’... 상록수역 방문



시·공간적 제약으로 취업활동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돕는 '경기도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는 상록수역처럼 접근이 쉬운 곳에서 취업정보 제공, 기술훈련 안내, 현장 상설면접 등 맞춤형 지원으로 구인·구직자를 돕는다.

11월 16일 일자리버스 '잡아바'가 상록수역에서 안산의 구인·구직자를 만났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아파트·빌딩 관리직에 지원하는 50대 구직자 세 사람이 현장에서 면접을 치렀다. 오후에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전직을 생각 중인 직장인이

방문해 심리상담과 직업훈련 등의 안내를 받았다. '잡아바'는 오는 28일에도 다시 상록수역을 찾는다.

김수미 직업상담사는 “취업정보를 찾는 게 급선무며 직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지금은 직업적 수명이 짧아서 생애별 연령별로 전직을 준비하는 게 좋다”며 “일자리버스를 편하게 찾아오시면 성심껏 상담을 도와드리다”고 했다.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지원플랫폼 홈페이지(www.jobaba.net)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일자리버스 지역방문 일정과 장소를 확인 후 '잡아바'를 찾아가면 취업성공에 이르는 취업알선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잡아바'는 경기도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12년부터 운용 중인 것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다니며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청년층 취업을 돕는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재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최대 1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연금,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 임금지원 위한 마이스터 통장, 근로자 복리후생지원용 경기도 복지포인트, 취업준비 청년에게 투자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기도 공공기관 청년인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 친화적 창업 생태계 조성, 온라인 취업역량서비스 고도화, 직업훈련과 일자리 협력망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26)
백미란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가을의 정취도 좋지만 냄새는 싫어” 거리의 은행 열매가 사라졌다

해마다 가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풍경이 있다. 바로 노랗게 물든 가로수 길 은행나무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 걸썩질에는 헵탄산(Heptanoic acid) 성분이 포함돼, 으깨지면서 풍기는

악취가 지독하다. 이 냄새는 시민들의 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밟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도를 벗어나 차도로 보행하게 하는 등 안전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이 민원으로 이어졌고, 안산시에서는 은행 열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단원구·상록구 양 구청별로 가로수 정비팀을 운영,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 등의 은행 열매를 우선적으로 제거했다. 이어 10월에는 시청과 구청 녹지관리 부서 직원들이 함께 주요 도로변의 열매를 집중 채취하기도 했다.

은행나무는 산소 배출량이 다른 수종보다 5~6배 높고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뛰어나 도심 공해에 강하고, 추위와 더위, 가뭄을 잘 이겨내고 병해충에도 강해 가로수로 많이 식재되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국가산업단지로 설계된 계획도시인 안산에 은행나무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작업을 통해 가로수 은행 열매로 인한 냄새와 보행 불편 민원 사항이 크게 줄었다.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서비스 사례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며 “지역 내 가로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수거하고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구간은 은행 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은행열매 중금속 함유 등 안전검사 결과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판정이 난 만큼 시민들께서 바닥에 떨어진 은행열매를 먹

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상록구 주민 K 씨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잎을 통해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는 하지만 솔직히 냄새가 너무 심해 걸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는데, 이번에 시에서 적극 나서서 은행 열매를 수거했다고 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그 은행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며 반가워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 (031-481-2326)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소식通

시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연장 운영

기존 밤 10시에서 2시간 늘려 12시까지 발급

안산시 단원구는 11월 1일부터 안산시청 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을 24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당초 시청 무인민원발급기는 오전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했으나, 시민 편의 중심의 민원발급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저녁 12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구는 시민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안산 전체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문의 : 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6134)

인터넷 창업 위한 무료 정보화 교육 예비 창업자의 수익 창출과 마케팅 지원

안산시 상록구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와 함께 지역 내 거주하는 소상공인, 취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창업을 위한 ICT(정보통신기술)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오픈 마켓 쇼핑몰 창업' 과정으로 오는 12월 7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오픈 마켓 쇼핑몰 운영, 검색 광고, 상품 등록 실습, 쇼핑몰 주문 상품 배송 및 송장 관리, 매출 증대와 고수익 창출을 위한 운영 노하우 등을 포함해 인터넷 창업에 필수적이고 실제로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대상자 모집은 11월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홈페이지(<http://sangnok-gu.an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상록구 행정지원과(031-481-5301)



“다문화 가족과 소통·화합의 장을 펼치다”

세계인의 날 기념 ‘다(多)문화 다함께 축제’ 성대하게 끝나

제 11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1월 4일 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한 ‘다(多)문화 다함께 축제’가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포함해 세계문화 퍼레이드, 문화예술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주요 공연으로는 화합 퍼포먼스 강강술래, 아프리카 브룬디와 인도네시아의 전통춤, 세계태권도아카데미의 시범공연 등이 있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을 직접 입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했으며,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했다.

더불어 행사장 한 쪽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허가, 법률, 노무 상담, 이력서 컨설팅, 결혼 이주 여성 취업 상담,

건강 보험 및 유아 학습상담 등도 진행됐으며,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 A 씨는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좀 더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외국인 노동자 부문, 결혼 이민자 부문, 다문화 사회통합 공로자 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아델 무하마드(파키스탄), 로살린 비이데이도(필리핀 출신 한국인), 손희연(한국인) 씨가 영예를 안았다.

◇ 문의 : 안산시 다문화지원과(031-481-3738)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부곡산림욕장 개장, “이제 도심에서도 산림욕을 즐긴다”

숲과 나무의 소중함 강조, 유치원생 나무가꾸기 체험행사도 펼쳐

안산시는 11월 16일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부곡산림욕장(부곡동 산5-1일원) 완공을 축하하고자 ‘부곡산림욕장 개장식 및 나무가꾸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곡동 인근 주민, 어린이집 어린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5헥타르(ha)의 산림에 비료주기, 가지치기, 우드칩 깔기 등 작업을 실시했다.

부곡산림욕장은 산림 체험 공간 확대 및 건전한 여가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산림욕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민간과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해 산림욕장을 조성했으며, 이날 개장식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주요시설로 유아숲 체험원, 주차장, 화장실, 산림욕 마당, 잔디광장, 휴게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

으로 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수리산 자락 4헥타르에 달하는 산책로에는 시민들이 휴식을 가질 수 있게 의자와 데크를 깔아 놓아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냈으며, 어린이들이 통나무를 타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건너 갈 수 있게 다리를 엮어 놓아 자연에서의 체험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림이 시민에게 주는 정서적 가치가 큰 만큼

부곡산림욕장이 시민들 마음의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가꿔나가겠다”며 “부곡산림욕장을 시의 명물로 발전시키는데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의 : 안산시 녹지과(031-481-2346)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조력발전소, 해솔길, 낙조전망대 등 '사진으로 보는 안산의 아름다움' 제11회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시상, 금상은 김태호의 '스케이트장' 수상



시화호 조력발전소, 대부도 해솔길, 구봉도 낙조전망대, 탄도 바닷길... 안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아~ 안산 9경(九景)!" 하고 무릎을 탁 칠 것이다. 공단의 도시로 알려진 안산에 9가지 볼거리라고 이름 붙여진 안산 구경(九景). 그러나 안산은 구경(九景)보다 더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으로, 안산 곳곳의 아름다움과 관광지로서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시작해 올해 제 11회째를 맞는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1월 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전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공모전에는 214명이 참가하여 796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금상 1점을 포함해 총 75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에는 주관 단체인 정관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장, 김동규 안산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금상은 김태호 씨의 '스케이트장'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여름에는 광장으로 겨울에는 스케이팅장으로 운영되는 문화광장의 모습을 찍은 것으로, 안산 도심 한가운데서 겨울의 묘미에 흠뻑 젖은 시민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즐거운 미소를 짓게 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안산문화광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은상, 동상 등 다른 수상작들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호수공원, 경기도미술관, 와스타디움 등을 담았고, 관람객들 또한 안산의 새로운 모습이라며 즐거워했다.

일상적인 공간 외에도 탄도항, 동주염전, 풍도 등 안산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를 담은 작품들도 전시돼 다시 한번 안산의 명소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금상을 수상한 김태호 아마추어 사진작가는 "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안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광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앞으로 사진 활동을 통해 안산의 변화되는 모습을 남기고 싶다"며 수상을 기뻐했다.

임영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고문은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안산을 찾게 하고, 안산을 담은 사진으로 안산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며 "참가제한은 없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공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화된 안산의 모습, 안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많이 촬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모전이나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안산지부(010-5331-7038)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청춘발산 페스티벌'... 청소년 공익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도 지역 사회의 중요한 주인공입니다"



마을이나 학교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끼와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청춘발산 페스티벌'이 11월 3일 오후 1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총 16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가한 이번 축제는 올해가 두 번째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뒤 지난 2017년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에서 벗어나 "청소년도 지역 사회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환경, 인권, 역사, 봉사활동, 청소년 참정권 등 다양한 주제로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공익성·자발성·실행력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뒤 활동 기금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안산희망재단, 안산YMCA, 청소년열정공간 99°C, 들꽃피는학교,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 '결'이 공동사무국으로 추진하고 있다. "음악을 통해 대부도를 알리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대부도에 사는 청소년들의 밴드 동아리 '방과후 댄따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16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1년의

성과를 공유하는 각종 전시와 이벤트를 진행했다. 청소년 인권, 길고양이 돌봄, 역사 바로알기, 다문화, 독거노인 가정 반찬 나눔 봉사활동 등을 주제로 청소년 동아리들이 세미나, 토론, 기행,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우고 실천해온 과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해 직접 디자인해 물품을 만든다든지, 환경·소비자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기사를 써서 알린다든지, 길고양이 이슈에 대해 시에 정책(고양이 보호소 등)을 제안하는 등 직접 행동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활동이 눈에 띄었다.

사무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 속에서 협력과 자치를 경험하며 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공부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끼리 활동하다 보니 모임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안정적이지 않다보니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열정적인 친구들이 함께 하니 서로 배울 것이 많다"고 했다.

◇ 문의 : 안산희망재단 (031-411-1984)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희망재단

소금

중간 정치후원금

음식의 맛을 살리지만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됩니다.

정치후원금 기부하고, 좋은 정치로 돌려 받으세요

|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입니다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

이해 10만원 초과

→

연말정산 세액공제

※ 깨끗한 정치문화 연동고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반드시요

정치후원금센터 give.go.kr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신속한 대응으로 범죤 현행범 검거” 상록경찰서, CCTV 모니터 요원 3명에게 포상



안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가 각종 범죤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행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담당 모니터 요원들이 상록경찰서(서장 김대기)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관제센터는 2010년 4월에 개소하여 현재 3천234대의 방범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매년 300여 건의 관제 실적(경찰통보, 경고방송 등)을 올리고 있다. 아울러 범죤 해결을 위해 5천여 건의 증빙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는 등 각종 범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포상을 받은 모니터 요원 이모 씨는 지난 9월, 상록구 본오동 745번지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피의자 2명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도주하는 용의자들을 CCTV로 추적하며 즉시 경찰에 통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월피동 골목길에서 데이트 폭력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 폭력 행위를 조기에 근절 한 모니터 요원 지모 씨와 본오동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시도자를 조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고예방에 기여한 모니터 요원 박모 씨에게도 표창을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김대기 서장은 10월 26일 오전 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도원중 안산시 U-정보센터 소장은 “범죤예방에 더욱 주력하고자 통합관제시스템을 개선해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왔다”며 “특히 여성과 아동들이 밤에도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안전귀가서비스 웹’을 10월에 개발·완료했으며, 11월부터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범죤 없는 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 안산시 U-정보센터(031-481-282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INTERVIEW

66 통일은 가까운 현실, 안산에서도 통일조례를 준비하다

99

• 강소영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사무국장



남과 북의 정상이 올해에만 세 차례 만났고, 그 결과 발표된 두 선언을 통해 실제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안산에서는 지난 10월, ‘안산시 평화통일 증진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안산시 평화통일조례제정추진위원회’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소영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사무국장을 만나 그 의미를 물었다.

만 그 결과인 평화와 번영의 파급효과는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것이기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Q 평화통일을 증진하고 준비하기 위한 타 지역 지방정부들의 조례 제정 현황은?
2018년 현재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 활성화’, ‘남북 농업교류’ 등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120개가 넘게 존재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인천·부산 등 광역단위는 물론이고 2012년에 제정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비롯해 부천, 성남, 평택, 안성, 남양주, 광명 등 안산 인근 도시에도 ‘남북교류협력’ 또는 ‘통일교육 지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Q 평화통일 조례가 제정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국제적 대북경제 제재로 인해 남북교류는 중단돼 있지만 평화통일을 향해 속도가 나고 있는 만큼 제재가 풀린다면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다. 정부 대 정부의 교류 외에 지방자치끼리 또 민간끼리의 교류도 분명 가능할 것이기에 모든 지방정부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통일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민들의 통일인식 증진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화통일교육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

Q 평화통일 관련 안산시민의 특성이 있다면?
안산은 모두가 알다시피 대표적인 산업도시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는 남쪽의 수도권과 북쪽의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이다. 안산의 산업단지가 ‘스마트허브’로 이미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가운데 통일과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은 우리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김홍도, 최용신, 이익 선생 등 분단 이전 시대의 역사적 인물을 품고 있는 안산 지역이기에 이후 남북 문화·역사 교류, 연구 활동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Q 통일은 국가사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지방정부인 안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런 주장때문에 이미 지난 2014년, 2015년 두 차례나 안산시의회에서 통일조례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통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민의 일이기도 하다.

이미 전국적으로 수많은 광역·기초 지방정부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의 통일교육과 남북교류를 추진해오고 있다. 통일은 정부 간의 노력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겠지만

◇ 문의 :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031-411-6150)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이웃과 이웃이 만나 행복한 동네를 만들어가요”



11월 8일, 상록구 일동에 주민의 참여와 협동을 촉진하고 이웃이 함께 신나게 살아가는 마을협동조합 '퍼즐(이사장 오병철)'이 문을 열었다. 퍼즐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는 일동 주민들이 이웃과 즐겁게 '마을 살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자'며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이다.

오병철 이사장은 "20년 전부터 공동육아를 시작해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마을카페를 운영해온 일동은 마을 축제에도 3천 명이 다녀가고, 8세부터 80대 어르신이 모이는 100인 합창단이 공연무대에 서는 등 주민들의 역량이 매우 높다"며 "퍼즐은 주민의 힘이 있기에 가능한 마을발전소"라고 강조했다.

주민센터를 지을 때도 전문가를 초빙해 공부한 후 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일동 주민협의회는 '일동동네 주민협의회'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명화 그리기'에서는 그림을 통해, '행복소통 북 세미나'에서는 책을 읽으며, 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동네. 마을에 스토리가 쌓일수록 마을에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

마을 민주주의를 경험하며 주민 주도로 모든 일을 해결해나가는 일동은 '2017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지난 7월에는 '2018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퍼즐'은 다양각색의 색을 가진 이웃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어 마을·일자리·공간·물품 공유를 목표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자 마을활동가 10명이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마을 공유'는 마을이야기를 기록하며 마을공동체를 알리고 주민자치 교육·연구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주민자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일자리 공유'는 마을정원, 김치·장 담그기 등 재능을 나누며 이웃의 어려움과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소소한 경제활동을 만들어가는 마을관리 생활관리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 기준을 만들고 있다. 공유 공간 '퍼즐'은 소모임, 작은 음악회, 세미나 등 배움터로 이웃과의 학습·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캠핑용품, 전동공구 등 일상에 필요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공유 경제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퍼즐(031-408-1225) /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청년창업의 꿈

안산시 청년큐브를 가다②

안산시는 경기도의 'NEXT 창조오디션'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비어있는 상가를 활용해 청년 창업공간인 청년큐브를 조성·운영해오고 있다.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인큐베이션 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융복합 실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여정을 소개한다.

예술과 상업의 공존을 꿈꾸는 '감성팔이 작업실'

예술은 나를 찾아 투명하게 보여주는 일



서울예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다. 2009년 졸업 이후 3년여 디자인 회사에 다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예술적 욕구가 솟구쳐 회사를 그만두고 조교로 학교에 돌아왔다.

디자인 전문 '감성팔이 작업실'의 원미 대표 이야기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철학이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러스트 모임을 하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도 경제활동을 위해 디자인 작업을 했던 원미 대표는 '일과 나만의 그림'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 그러던 중 '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2018년 1월 창업, 청년큐브 예대캠프에 입주했다. '나만의 브랜딩'과 '서울이 아니라도 예술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런던 아트페어 참가, 롯데 캘린더와 씨유(CU) 사보의 표지 일러스트 작업을 했으며, 마켓포레스트, 안산시 사회

적기업 홍보물 등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영역을 넓히는 입체물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그의 작업은 그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자기 공방이나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들과 협업으로 엽서를 만들기도 하고 영상, 사진, 음악, 글 작업을 하는 예대 조교들과 그룹전시회를 하고 일러스트레이터 그룹에서 출판작업 등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을지로 무림갤러리에서 아트북 전시 '문화를 담은 책과 종이展'의 쇼 윈도우 전시를 맡아 팝업 북 형태의 3m×2m30cm의 조형물을 제작했다. 무림페이퍼의 종이와 원료를 활용해 드로잉, 프린트, 종이죽으로 만든 입체 인형까지 다양한 작업을 시도한 작품으로 내년 3월까지 전시한다.

예대 입학의 계기로 10년여 동안 안산에 살면서 안산이라는 도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전 총괄 디렉팅 및 '꿈' 설치물과 단원고 생명길에 벽화를 제작했으며, 지역 예술가들과 연대해 '컬처75'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미 대표는 "청년이지만 전문성을 봐주기 바랍니다. 스케치부터 컬러까지 이미지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인정해주며 예술가들을 품어줄 때 예술이 빛이 나며 서로 상생하게 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전자책보다 종이 질감이 좋아 감성을 파는 아날로그 방식의 작업을 하는 젊은 청년은 오늘도 우리 세대가 끌고 가야 할 이야기들을 이 시대의 감성으로 해석해 그림을 그린다.

◇ 문의 : 감성팔이 작업실(meehouse225@naver.com)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착한가게 시리즈-⑩

원곡동 골목길 터줏대감 벽산세탁

손님 얼굴만 보고도 어떤 옷을 찾으러 왔는지 척척 골라내는 달인!



짧은 기간, 도시의 골목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골목길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구멍가게는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늘어나며 자취를 감추었고, 서민들의 대표적 생계형 업종인 동네 세탁소도 급속하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대규모 자본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프랜차이즈 세탁업의 출현과 가정 내 세탁관리기의 보급, 최근에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무인 세탁소가 도입되고 있어 동네세탁소의 '살아남기'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동네를 지키고 있는 안산시 착한가게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원곡동 벽산아파트 상가 2층에 자리한 벽산세탁이다. 양복 한 벌 세탁하는데 드는 비용은 5천 원. 세탁물 수거와 배달까지 해준다. 올해로 7년째 벽산세탁을 운영하고 있는 홍웅기 대표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으로 수선부터 세탁의 모든 과정을 외주 공정 없이 직접 진행한다. 대량 세탁물도 한꺼번에 세탁이 가능한 설비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묻자 “처음엔 저가형 프랜차이즈 세탁업이 늘어나니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손님 대부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맞벌이거나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아 가격을 올리기가 부담스러워 주변보다 싸게 책정하고 있다. 입소문이 났는지 다른 동네에서도 세탁물을 모아서 직접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성없이 일해야 하지만, 단골손님들이 감사하다며 건네주는 음료수 한 병과 감사 인사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세탁소에 들어서는 손님 얼굴만 보고도 어떤 옷을 찾으러

왔는지 척척 골라내는 홍 대표의 모습이 놀랍다.

“집집마다 다니며 배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세탁소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손님이 가게에 들어서면 무슨 옷을 찾으러 왔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세탁소 일에 매달려 지금은 장성해 다 출가했지만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향후 계획은 세탁소 한쪽에 손님들이 차 한 잔 마시며 잠시나마 쉬어 갈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가게를 꾸미는 것.

◇ 문의 : 안산시 지역경제과(031-481-2842)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벽산 세탁소

주소 : 단원구 라성로 43, 221호

운영시간 : 오전 9시~저녁 9시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전화 : 031) 483-2363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발로 뛰어 봉사단'

“김장 담가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기쁨 무척 큼니다”

찬바람 불어 거리에 낙엽이 뒹굴 때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인다.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 '발로 뛰어 봉사단'은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마련해 지난 11월 10일 상록구 월피공원에서 배추김치 2천포기를 담갔다.

송월순 봉사단 고문은 “100포기 200포기 씩 집집마다 김장을 하던 옛날만은 못해도 김장김치는 겨울을 나는 한국인의 필수식품”이라며 “직접 김장을 담가 드시기 어려운 이웃들께 김장을 담가 전해드리는 보람이 무척 커서 기쁜 마음으로 해마다 행사에 참여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이날 김장 나눔 행사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 봉사단원 40명은 하루 전날 일일이 무를 채 썰고 파, 마늘, 생강을 다져 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찹쌀 풀, 갖을 넣어 배추 속을 준비했고, 의료사협 조합원과 자원봉사에 나선 시민 200여 명이 동참해 배추 2천포기의 배추 속을 채웠다. 온정으로 담긴 김장김치는 10kg씩 상자에 담겨 본오동, 월피동 등 안산 전역의 독거 어르신 300가정에 전달됐다.

김장 나눔 행사는 '발로 뛰어 봉사단'이 2013년부터 해마다 하는 활동으로,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뜻 있는 사람과 단체 후원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임감목 의료사협 이사는 “추운 겨울 한기가 더 느껴지는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이나마 드릴 수 있어서 흐뭇하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 사회가 다함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한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고 했다.

의료사협은 지역 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힘을 합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건강증진·봉사활동 등을 펼치는 조합이다. 우리 사회가 구성원을 온전히 보듬던 마을 단위 지역공동체

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기능 약화와 자본주의 경쟁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 버린 지금, 정서적인 마을공동체 복원을 꿈꾸며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5만 원을 출자하고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문의 :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031-401-220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주)써피텍 이희범 대표이사

최상의 품질 경영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고객만족을 추구한다



안산시 역사와 한 길을 걷고 있는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산업단지)는 안산 시민들의 일터이자 안산시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의 성장둔화와 경쟁력 약화, 기반시설 낙후로 인한 생산성 저하, 입주기업의 영세화·소기업화 등 어려움 속에서 혁신과 재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 온 기업이 있다. (주)써피텍은 20년 이상 축적해 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인쇄회로기판 금도금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다. 대덕전자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해외기술연수를 통해 기술력을 축적해 (주)써피텍을 경영하고 있는 이희범 대표이사를 만났다.

Q 설립한 지 20년 역사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인쇄회로기판 금도금업계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주)써피텍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99년 9월에 (주)써피텍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금도금 분야에 집중해 연구·개발에 매진했고 우리만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주)써피텍은 ISO 인증 및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등 성과를 쌓아왔고 금도금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기업이다.

최근에는 도로 안전 표지판 관련 최첨단 기술을 연구·개발해 작년 12월 부산 개좌터널 도로에 샘플 시공했고 이후 구미시 급커브 도로와 가드레일 시공, 청주시 회전교차로 시공 등을 해내기도 했다.

Q (주)써피텍이 성공적인 기업운동을 해 올 수 있었던 중요한 가치나 비전이 있는지?

기업 운영과 품질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객 중심의 품질 경영 실천'이다. 내부적으로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실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고객에 대해 보다 빠르고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추구한다.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듯 기업과 직원이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보완해 나간다. 그런 과정에서 모두가 긍정적인 자세로 서로를 위하고 함께 계획한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써피텍에서 개발한 도로안전표지판

Q (주)써피텍의 생산품목에 대해 더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면?

금도금은 인쇄회로기판(PCB)의 표면에 금을 입히는 공정으로 무전해·하드·소프트·두께 도금 등 다양하게 생산되며 휴대폰·자동차·통신보드·LED 등 모든 전자제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적인 공정이다.

인쇄회로기판은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40~50회 공정을 거친다. 어느 공정 하나 쉽게 볼 수 없지만 금도금은 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공정이라 할 수 있다.

금도금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그만큼 높은 기술력과 품질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주)써피텍은 제품의 사전처리 과정부터 최상의 기술력을 접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해 직원들이 일 할 수 있게 하고, 최고의 원자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량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철저한 사후검사로 엄격하게 품질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Q (주)써피텍의 새로운 도전으로 도로표지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회전 교차로, 급커브가 있는 도로에서 야간 운전을 하거나 특히 갑자기 어두워지는 터널에서 운전할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터널 벽에는 도로 표시체를 만들 어두게 되어 있고 커브 등 표시가 필요한 도로에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표시체들은 시인성이 부족한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량의 배기가스나 미세먼지에 의해 쉽게 오염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우리가 개발한 도로 안전 표지판은 고굴절 반사를 이용한 도로 공법으로 시인성, 판독성, 내구성이 좋고, 불연재라서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2차사고 예방도 가능하다.

2018년 1월, 사내에 도로사업부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으며 부산, 구미, 청주 등에 시공했다 이후에는 우리 지역 안산의 도로에 우리가 개발한 도로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활동도 많던데.

매월 공단 내 스마트경영자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가해 세미나도 하고 정보도 교류한다. 그 과정을 통해 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와 공단 전체의 발전에도 힘을 보탬 수 있었으면 한다. 또 항상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협의회 활동과 로터리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지역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Q 안산시민들께 한 말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개발과 노력으로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고용 유지와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다. 또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안전한 사회가 되는데 함께 노력하겠다.

어느덧 2018년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만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다.



경기도미술관

단원미술관

성호기념관

예술열차 안산선

미디어라이브러리

일상의 심포, 안산에서 즐기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영화관 할인 등 혜택 풍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더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2017년 7월부터는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뿐만 아니라 그 주말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비용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알찬 ‘문화가 있는 날’을 활용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것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중 하나일 것. 11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는 28일, 안산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즐길 수 있다. 먼저 오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CGV안산, 롯데시네마안산 등 모든 영화관에서 관람료 5천 원에 영화를 볼 수 있다.

자녀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도 있다.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에서는 오는 30일까지 파닉스(phonics, 발음 중심 언어 지도법)를 익히기에 좋은 ‘닥터 수스(Dr.Seuss)의

책’ 전시회가 제1, 제2 영어자료실에서 열린다.

상록어린이도서관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과 함께 하는 매직 스토리텔링 ‘호랑이 이야기’가 29일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며, ‘도서 전시’도 함께 열리고 있다.

단원미술관과 성호기념관은 28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연장 개관하며, 단원미술관에서는 ‘단원절세보첩: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전시, 성호기념관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하는 전시 해설이 진행된다.

안산문화재단의 ‘문화정검다리 예술열차 안산선’은 안산역에서 오후 5시부터 펼쳐진다. 예술열차 안산선은 매월 선정 주제에 맞게 열정적인 공연과 아기자기한 부스 등 즐길 거리가 많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 주제는 ‘다양성’이다.

안산어촌민속박물관도 당일 관람료 할인 혜택이 있다. 이외에도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h1>12</h1> <h2>Culture Calendar</h2> <p>문의 : 안산문화재단(080-481-4000), 경기도미술관(031-481-7000) 단원미술관(031-481-0505)</p>						
<p>◆ 단원미술관 단원콘텐츠전 <단원절세보첩檀折世寶帖; 마음으로 그린 산수화> 기간 상설 장소 단원미술관 3관</p> <p>단원미술관 상설체험전 <그림책에 담은 옛 이야기> 기간 ~ 2019.6.30. 장소 상사미술공장</p> <p>◆ 경기도미술관 이야기 사이_ Stories&Dreams 기간 10.25.~2019.8.18. 장소 기획전시실</p> <p>생생화화 2018 기간 12.11.~2019.3.10. 장소 기획전시실</p> <p>◆ 각종 행사 제2회 안산단원국제문화예술영상제 일시 2018.12.1. 14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p>	<p>3 단원절세보첩 2018.7.10-상설전시 단원미술관 3관</p> <p>단원절세보첩 2018.12.25 (화) 오후 5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5 화·무연리지 일시 12.5. 19: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2018.12.5.(수)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공연 2018.11월 28일 09:00-10:00</p>	<p>MOVIES MUSIC KAROS 영화와 음악과 카로스 2018.12.13 (목) 오후 7:3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2018.12.20(목) 오전 1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티켓 15,000원, 5,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 공연시간 70분 문의 및 예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예 080-481-4000 인터넷 1544-1555</p>	<p>바디콘서트 모든 것을 넘어선 음악의 한계 2018.12.07 ~ 8시 12.08 ~ 3시</p> <p>13 영화와 음악과 카로스 일시 12.13. 19:3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20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일시 12.20. 11: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21 신흥무관학교 일시 12.21. 20:00 12.22. 14:00, 19:00 12.23. 14: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7 바디콘서트 일시 12.7. 20:00 12.8. 15: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p> <p>14 꽃불 일시 12.13. 14:00 12.14. 14:00, 19:30 12.16. 16: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p> <p>21 신흥무관학교 일시 12.21. 20:00 12.22. 14:00, 19:00 12.23. 14: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8 호두까기인형 일시 12.7. 19:30 12.8. 19: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p>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호두까기인형 THE NUTCRACKER 2018.12.07(화) 오후 7:30, 2018.12.08(수) 오후 3:00, 7: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티켓 60,000원 15세 이상 관람가 공연시간 120분</p> <p>25 뜻밖의 선물 일시 12.25. 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p>

안산의 자부심 시리즈④



“살아서 거주하는 곳은 안산이 최고(生居最說安山好)”라고 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말이다. 그만큼 천년고도(千年古都) 안산은 ‘살기 좋은’ 지역이다. 지명에 ‘편안할 안(安)’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기도 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역사나 문화재, 인물들을 모아 시리즈로 소개한다.

대부도 갯벌이 아름다운 생태보물섬

람사르 습지 등록... 생태적 가치, 국제적으로 인정받다 효율적 보전과 현명한 이용 추구, 생태관광 활성화 기대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큰 역할 담당

안산에는 천혜의 관광자원 대부도가 있고, 대부도에는 철새가 날아드는 광활한 갯벌과 갈대숲에 가려진 생명의 땅 대송습지가 있다. 이번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대부도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지난 10월 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기 안산 대부도 갯벌 두 곳이 람사르 습지로 공식 지정됐기 때문이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 18개국 대표자들이 모여 체결한 국제습지보호조약으로 1975년 12월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101번째로 가입했다.

이 협약은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또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170개 국가에 총



2천326곳의 습지가 등록되어 있다. 안산시는 올해 1월 대부도 갯벌(453헥타르)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해양수산부를 거쳐 람사르 협약 사무국으로 등록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총회에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번에 등록된 갯벌은 상동(1.39km²)과 고랫부리(3.14km²)다. 모두 지난 2017년 3월 국가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곳에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총 104종의 대형 저서동물(환형동물 34종, 절지동물 39종, 연체동물 23종, 극피동물 1종 등)이 살고 있으며, 특히 보호대상해양생물인 흰발농게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총 8종의 염생 식물이 0.5km² 규모의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법적보호종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등 총 14종 바닷새들의 휴식지이자 취식지

로서 상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저어새의 경우 전 세계 생존 개체수가 2천여 마리 이하, 노랑부리백로의 경우 5천여 마리 이하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도 갯벌은 수많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 상태를 잘 보전하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곳”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대부도 갯벌은 해양 동·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높고 철새들의 먹이가 되는 대형 저서동물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국내 평가 기준 5등급 중 최상급으로 평가되는 우수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람사르 습지 등록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해져

람사르 습지란, 습지의 유형이 희귀하고 독특하거나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2만 개체 이상 물새의 서식지 등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큰 습지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국의 신청을 받아 람사르 협약 사무국에서 심사해 인정(등록)하





는 습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후보 습지를 조사·발굴한 후 람사르 습지 정보양식(RSIS)을 작성·제출하면 사무국이 약 3~4개월 동안 심사·보완을 거쳐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는 것은, 그 습지가 가지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환경부에서는 람사르 습지 등 주요 습지에 대해 정밀조사, 훼손지 복원, 탐방이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면서 생태관광 등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 강원도 인제 대암산 용늪, 경남 창녕 우포늪, 전남 순천만, 제주 동백동산 습지, 전북 고창 운곡습지 등의 경우도 람

사르 습지 등록을 계기로 생태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도 주민 A 씨는 “이번 람사르 습지 등록이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주민들의 노력으로 습지를 보호하고 관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습지도시 인증마을’로 등록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습지도시 인증마을’ 등록되면, 람사르 브랜드 사용 가능

‘습지도시 인증마을’로 등록되면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브랜드를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농산물이나 특

산물 판매,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동백동산습지, 경남 창녕군 우포늪, 전남 순천시 순천만 갯벌, 강원 인제군 대암산 용늪 4곳만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도 갯벌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소중한 습지에 대한 선진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지역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출간 사진집 ‘대송습지, 갈대숲에 가려진 생명의 땅’ ‘대부도, 갯벌이 아름다운 생태 보물섬’ 등 4권

안산의 아름다운 생태와 경관을 담은 홍보 사진집이 발간됐다. ‘사진으로 보는 안산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대송습지, 갈대숲에 가려진 생명의 땅’, ‘대부도, 갯벌이 아름다운 생태보물섬’, ‘안산의 숲’ 그리고 ‘2017 안산, 길 위의 도시기록’ 총 4권이다.

안산시는 이 4권의 사진집을 통해 대송습지 및 대부도 갯벌 등 우수 해양 생태·경관을 기록으로 남겨 교육·학술 및 시정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안산 도시 숲의 우수성과 재건축 등 도시재생으로 인해 변화해 가는 도시 모습도 사진으로 기록했다. 먼저 ‘대송습지, 갈대숲에 가려진 생명의 땅’은 그동안 사람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채 다양한 철새와 생명을 품고 있던 대송습지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사진집에 담은 것으로 각종 교육 및

학술 자료 등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도, 갯벌이 아름다운 생태보물섬’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그 모습을 바꿔가며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이는 대부도 갯벌의 진면목을 담았다. 대부도 고갯부리와 상동해안은 지난 3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우리나라 14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 지역에는 염생식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멸종위기종 조류와 다양한 저서동물(성게, 새우 등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사는 동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안산의 숲’은 ‘도시 숲’ 확충을 선도하고 있는 안산시의 노력과 숲의 무한한 가치, 그동안 몰랐던 안산의 아름다운 숲의 모습 등을 책으로 만나 볼 수 있다. ‘2017 안산, 길 위의 도시기록’은 최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라져가는 건축물과 그 안의 서민생활 등을 카메라에 담아 책으로 남김으로써 향후 도시 기록화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안산시는 학술적 가치가 큰 사진집 4권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집은 안산시 e-book자료홍보관(<http://ecatalog.an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진자료는 안산시 포토갤러리(<https://photo.ians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안산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릴레이 포럼 개최

공연 예술 발전, 지역문화 발전, 전시문화 발전 등 3개 카테고리로 진행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을 책으로 엮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
 멀게만 느껴지는 문화와 예술, 우리의 일상과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없을까?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문화·예술 릴레이 미니 포럼 '징후와 전망'을 개최했다.

포럼 장소는 민간 극장 활성화라는 취지에 따라 글로벌제이아트홀(단원구 중앙동)에서 진행됐다. 총 3회에 걸쳐 열린 포럼은 '공연 예술 발전을 위한 모색'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모색' '전시문화 발전을 위한 모색'이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발제와 지정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객석 토론자를 초빙하여 열린 토론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띄었다.

각 포럼에는 전은경 글로벌제이아트홀 대표, 이재용 민예총 안산지부 미술위원장이 참여했다. 릴레이로 진행된 미니 포럼은 소극장에서 진행되다보니 공간이 주는 딱딱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무대 위의 전문가와 패널, 객석의 시민 참가자가 자리 구분 없이 앉아 안산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따뜻한 응원과 진정성 있는 비판까지 다양하게 쏟아냈다.

한 참가자는 "우리 아이는 단원미술관이 키웠다고 할 정도로 미술관을 자주 갔다. 하지만 여전히 미술관은 어렵고 친절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작품에 담긴 작가의 생각이 무엇인지,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바라봐야 하는지, 친근하게 도슨트(docent,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는 "가만히 자리를 지키는 미술관보다는 시민의 일상에 함께 들어와 움직이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미술관이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조충현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 차장은 "새로운 토론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노력했고 실효성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시민 관객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한 번의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내년에는 더 발전된 형태의 문화·예술 릴레이 미니 포럼 시즌2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은 이후 책자로 발간하여 더 많은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031-481-4044) /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2018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 '성황'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18 경기도 무형문화재 대축제(이하 무형문화재 축제)'가 펼쳐졌다. 올해 20번째를 맞아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축제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68종목 중 65종목(예능 26, 기능 39)의 보유자들이 참가해 작품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졌고,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개막식에서 임우수 경기도무형문화재총연합회 이사장은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라며 "급변하는 문화 환경 속에서도 온고지신의 자세로 조상들 삶의 유산을 재현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생들에 감사하다."고 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경기소리, 승무살풀이춤, 경기고깔소고춤, 자리걸이, 광명농악, 경기검무, 안성남사당놀이 등 예능 26종목의 공연과 방자유기장, 조선장, 화각장, 악기장, 나전칠기장, 단청장 등 공예기술 36종목에 더해 계명주, 군포당정 옥로주, 남한산성 소주 등 3개의 전통주도 참가했다. 장효순 대목장(도편수)은 국보 제50호로 지정된 전남 영양의 도갑사 해탈문 모형 앞에서 작품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성포동에서 온 이희진 씨는 "초등 1학년 아들이 불화(佛畵) 앞에 서서 그림 속에서 주작과 현무를 발견하기도 하고 관심 갖고 들여다보네요. 이런 세밀한 작품들을 손으로 만든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라며 웃었다.

야외 특설무대에서는 광명농악, 경기민요 긴잡가, 안성 남사당놀이 등 공연이 진행됐다.

◇문의 : (사)경기무형문화재총연합회(02-899-166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 사진_김진국 명예기자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①

인도 음식 '팔락파니르'

"한국인 입맛에 맞는 현지 커리"



안산은 107개 국가에서 온 8만4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 도시이다. 이러한 특징을 적극 활용한 다문화거리가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10개 나라 64개의 음식점이 영업 중으로, 대부분

각 나라 이주민들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식당들을 방문하는 손님들 역시 각 나라의 이주민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해외여행을 통해 각 나라의 음식을 접한 한국인들도 별미를 찾아 다문화거리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비행기 타고 멀리 해외까지 나가지 않아도 다양한 나라의 현지 음식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가까운 안산을 방문해 다문화거리를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인도의 '팔락파니르 커리'이다. 팔락(palak)은 시금치를 뜻하고 파니르(paneer)는 인도식 코티지 치즈를 말한다. 식당 메뉴판에는 "시금치를 곱게 갈아 크림과 수제치즈를 마살라와 허브를 넣고 만든 고소한 커리"라고 소개되어 있다.

재료 특성상 채식주의자들에게 사랑받는 요리이기도 하며,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춰 특별히 새로운 재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대부분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요리이기도 하다.

특히, 인도 커리는 로띠, 난, 밥에 곁들여 먹어야 제 맛이며, '팔락파니르'(8천 원)와 함께 '갈릭 난'(2천5백 원)을 먹으면 인도 현지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단원미술관, '즐거운 인문학 나들이' 강좌 열어 김홍도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회화의 궁금증을 풀어보다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은 안산시 평생교육 뿌리찾기 '즐거운 인문학 나들이'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원읽기'라는 주제로 시작한 미술관 인문학 아카데미가 지역 주민들의 열띤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더욱 넓고 깊이 있는 주제로 확대, 안산의 역사, 단원 김홍도의 삶과 예술, 조선시대 회화 그리고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폭 넓은 강좌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에는 이근호 국민대학교 연구교수, 최은철 흥익대학교 초빙교수, 조정욱 미술평론가, 김주현 이화여대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지윤 삼성미술관 '리움' 책임연구원 등을 초청해 안산의 대표 문화인물인 성호 이익, 표암 강세황, 단원 김홍도를 더욱 심도 있게 알아봤으며, 김홍도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회화의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다.

또한 강좌 기간 중 김홍도의 '금강산화첩'과 '병진년화첩'에 등장하는 실제 장소인 강원도 양양 낙산사와 충북 단양 도담삼봉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직접 돌아보는 답사기행도 마련했다.

단원미술관 관계자는 "인문학 강좌는 평일 오후에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정원을 넘어서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박물관 관장, 미술평론가, 학예연구관 등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미술계,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매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즐거운 인문학 나들이' 강좌는 오는 11월 28일 '병진년화첩'에 등장하는 '도담삼봉' 탐방 1회를 남겨두고 있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기획홍보부(031-481-4044)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별망품바축제 '품바&마린 콘서트' 화려하게 펼쳐져 시화호의 역사를 마당극으로... 세계전통의상 사진 대회도 열려



별망품바축제 '품바&마린 콘서트'가 11월 10일 토요일 시화나래공원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안산예술인총연합회(회장 김용권)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 K-water, 경기문화예술진흥재단이 후원한 것으로, 남양만(시화호)의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바 마당극 형식으로 풀어가는 퓨전극으로 준비했으며, 관객들이 시화호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장소도 시화나래공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지역 문화 공연을 통해 역량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하자는 취지도 포함했다.

이날 공연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두 차례로 진행됐다. 오전 11시 30분부터 노래팀 '퍼니스타일'이 힙합 공연을 펼쳤고, 성악중창단은 바다를 주제로 한 뮤지컬과 가곡 등을 부르며 시화호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했다.

이어 조선 초 남양만(시화호)에서 일어난 별망성 민초들의 이야기를 관객과 함께 풀어가는 가족형 퓨전 마당극이 펼쳐졌다. 창(唱)과 댄스가 함께 만나는 역사 퓨전극 형태의 품바 마당극은 무대 위로 오른 시민들이 즉석에서 출연진과 호흡을 맞추며 재미를 더했다. 흥겨운 풍물패를 앞세우고 시민과 함께 하는 마당극으로 준비돼 더욱 인상적이었다.

이날 시화나래공원 주변에서는 '사진 세계전통 의상을 입다'라는 주제로 제6회 세계전통의상 사진 촬영 대회도 함께 진행됐다.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출신 배우들이 저마다 자국의 고유 의상을 입고 대부도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며 촬영 대회를 가졌다.

시흥에서 온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모델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으며 "대부도에 오니 참 재미난 행사도 많아 여행이 재밌다"고 했다. 텔런트 겸 영화배우 정욱(80)씨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참가해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용권 회장은 "시화호 '품바&마린 콘서트'와 '별망성예술제'를 연계하여 꾸준히 작품을 선보이고, 안산시와 수자원공사, 경기창작센터 등과 협력해 수준 높은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대부도를 다시 찾아오고 싶은 명소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문의 : (사) 안산예총 031-485-3844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오픈스튜디오 프로젝트

‘옆집에 사는 예술가’(2)

예술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공간이 활짝 열렸다.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해온 G-오픈스튜디오 ‘옆집에 사는 예술가’가 올해는 안산의 열 두 작가를 찾았다. 안산문화재단 공모로 선정된 열 두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 이들의 작품세계를 들여다본다.



김세중 작가 : 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의 공존
과거-현재-미래가 영원의 이름으로 지속되다

홍익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김세중 작가는 동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현대적 극사실적 초현실화를 연구한 후 홍익대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한국미술대전과 단원미술대전 특선 수상, 박수근미술관, 박영덕화랑 등에서 개인전 외 200회가 넘는 단체전에 참가했다. 박수근미술관과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로도 활동한 그의 작품은 국방부, 한화그룹, 천주교 서울대교구, 광주시립미술관, 박수근미술관, 단원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김세중이 탄생시킨 대부분의 그림은 하늘과 바다처럼 무한히 열린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한없이 펼쳐진 광활한 하늘과 바다에 그리스 로마 조각상, 빈티지한 기물들, 꽃, 종이배, 조약돌, 나비, 바이올린, 달 등이 부유하며 영원히 순환하는 시간을 은유한다.

화가는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무엇을 갈망하며 경이로운 차원을 포착해낸다. 오랜 시간 바닷물의 들고 남에 깔이고 매끈해진 돌멩이들, 바닷가를 구르는 별 볼일 없는 돌멩이들은 김세중 작가가 천착해 온 ‘영원’이라는 주제를 촉발시켰다.

“하루에 단 한 번 오가는 배편으로 발이 묶인 백령도 바닷가에서 마치 조그마한 돌덩어리가 온 세계와 시간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영원한 시간을 느꼈다.”는 김

세중 작가. “처음 만난 돌멩이들과 그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파도의 잔물결 소리가 말을 건네는 것처럼 들렸다”는 화가의 경험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돌이 주는 촉감과 파도의 청각적 효과는 ‘지금, 여기’를 초월하며 하늘과 바다로 확장되고, 루브르박물관, 대영박물관, 바티칸박물관의 조각상들에 해안가 돌멩이의 매끈하고 몽글몽글한 감촉을 재현한다.

견고한 석상은 현대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면서 결코 소멸하지 않을 듯하다. 이러한 영원성을 찰나의 순간으로 포착해 캔버스에 재구성한다. 과거는 현재로 회귀하고 현재는 과거를 참조하며 미래는 영원의 이름으로 지속된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옆집에 사는 예술가’ 안산편

회화, 도자, 조각 등 열두 명 작가의 아카이브 전시 ‘꽃샘, 열기’



지난 11월 16일, 단원미술관 전시실에 ‘옆집에 사는 예술가’(이하 ‘옆집예술가’)들의 아카이브(archive, 데이터 보관) 전시 ‘꽃샘, 열기’가 마련됐다.

‘옆집예술가’는 경기지역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보다 밀도 있게 소개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이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가의 작업실이라는 공간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자 문화적 거점 공간으로서, 그 문화재생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활용하기 위해 예술가의 작업실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경기도 전역의 작가 작업실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옆집예술가’가 2016년 안성, 2017년 화성을 거쳐 올해는

안산문화재단과 함께 안산의 열 두 작가를 찾았다.

‘옆집예술가’ 안산편은 지난 9월 8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안산 작가들이 지닌 삶의 철학, 작품세계, 작업의 과정 등 일상을 풀어냈으며, 안산문화재단은 이들의 회화, 도자, 조각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꽃샘, 열기’라는 제목은 꽃샘의 나날을 뜨겁게 달구는 작가의 열기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자긍심과 소명을 갖고 평생을 분투하는 작가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다.

출품작들은 작가의 동시대 작업뿐만 아니라 작가로서의 길을 준비하던 학창시절 작업과 젊은 작가로서 첫발을 디딘 시기의 작업, 원숙한 세계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변곡

점 등 다양하며, 이번 전시는 안산에서 만난 열 두 작가의 작품이 지역을 넘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을 촘촘하게 비출 예정이다.

‘꽃샘, 열기’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며,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는 전시 해설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단원구 고잔동,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상' 쾌거 마을정원, 마을기업,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 부분 높은 평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7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단원구 고잔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 활성화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17회를 맞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참여 주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성화 방안 공유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열리는 것으로, 고잔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사례 단체로 선정, 지난해에는 장려상,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은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 제도정책 등 총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고잔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는 마을정원, 주민자치로 시작해 마을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통장 만들기, 8년째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마을신문 등으로 지역활성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주목을 받은 것은 마을정원이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온 주민자치위원들은 경기 정원문화박람회를 통해 경험했던 고잔동 소생길 마을정원에 대해 궁금해 하며 “만들기는 쉬우나 유지 관리가 어려운 마을정원의 모범사례”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전통장 또한 “도심에서 하기에 쉽지 않은 활동을 주민들이 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여 장을 만들어 나누고 있다”는 설명에 많은 지지가 쏟아졌다.

고잔동 문화마을신문 또한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 마을신문이 8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주민들의 노력과 자부심에 대해 감탄했으며, 신문 발행이 전적으로 주민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했다.

고잔동 주민자치위원들 또한 여러 자치단체의 부스를 돌아보고 단체장들과 교류하며 더욱 활발히 활동하자는 의지를 보였다.

황희숙 위원장은 “우수상을 받아 무척 기쁘다.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다. 특히 마을정원이 여러 단체의 주목을 받고 답사를 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더욱 잘 가꾸어 전국에서 오고 싶은 고잔동으로 만들고 싶다.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것이며, 내년에는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안산시곡초, 학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매주 수요일, 공감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요”



안산시곡초등학교(교장 정병균)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학부모와 3~6학년 학생들이 함께하는 독서 토론 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독서 토론 동아리는 하나의 주제를 선택한 후 그에 맞는 도서를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는 환경을 주제로 운영했으며, 올해의 주제는 문학이었다. 이를 위해 안산의 책으로 선정된 ‘장꿀짜와 서반장’을 선택해 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며 비경쟁 독서 토론 방법을 배웠으며, 직접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학생들은 개인문집까지 만들어 더욱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활동이 모두 끝난 후에는 전시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감상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아리 활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읽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다.”며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소통을 통해 얻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곡초는 경기도교육청 지정 ‘체험이 삶이 되는 레(禮)-키즈(kids) 스쿨, 시곡초 글로벌 예절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글로벌 예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마당 축제 형식으로 보고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마당 축제는 서양식 흥차를 체험하는 교사 연수,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학생 교육, 일본차를 체험하는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으로 각각 운영됐으며, 그동안 운영 결과물 전시회를 열어 약 100여 명의 시민들이 보고, 듣고,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시곡초 관계자는 “글로벌예절체험학습장을 경험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험이 삶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문의 :안산시곡초(031-487-6352)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대부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대부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5일 중현동 어촌체험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원과 유관단체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거노인을 돕기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배추를 재료로 국내산 천연염을 사용해 정성껏 담갔으며, 김장김치는 회원들이 직접 독거노인들과 어려운 가정 40곳에 전달했다.

박성심 새마을부녀회장은 “오늘 김장에 참여해준 대부동 단체회원들과 시화조력 발전소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정성을 담아 담근 김치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한다.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천 대부동장은 “김장나눔 행사를 매년 준비해준 새마을부녀회와 유관단체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김장김치가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온정의 손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름다운 만남' 행사 개최

해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9일 복지사각지대인 고려인, 농아인, 발달장애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초청해 공연과 저녁식사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일 년 동안 협의체에서 모금한 성금과, 각종 행사에서 먹거리장터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성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기획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이 매달 회의 전에 배운 수화 공연과 발달장애아동의 난타, 농아인을 배려한 마술쇼, 고려인을 위한 중국 변경술과 홀라후프 공연 등을 함께 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참석자들을 위해 목도리, 장갑 등을 선물로 준비해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윤용길 위원장은 "이번 '아름다운 만남행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과 함께 어울리고, 문화활동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정순미 해양동장은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해양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고령 어르신 주거환경개선 봉사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익단체 해피기버와 함께 지난 9~10일 이틀간 주거환경 개선 지원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정모 어르신은 수년간 잠자리를 제외한 집안 전체에 무릎이상의 고물, 쓰레기를 채워놓고 생활하고 있어 악취와 해충으로 이웃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정모 어르신은 이웃 간 갈등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고립된 채 외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사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집안 내 전체 고물을 매입하고 공익단체 해피기버가 도배, 장판을 지원해 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해피기버 관계자는 "복지협의체와 봉사를 함께 진행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협의체와의 봉사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줄여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광석 위원장은 "청소와 도배, 싱크대 및 장판 등을 지원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해피기버와 봉사에 힘써준 위원에게 깊은 감사한다"며 "이번 지원이 정모 어르신께서 쾌적한 주거에서 안락하게 생활하고 이웃과 원활한 유대관계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오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고추장 · 사랑의 된장 나눔' 행사



본오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고추장 · 된장 나눔사업'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고추장과 된장을 관내 독거어르신 67가구에 전달했다.

협의체는 올 한 해 동안 '안산희망이웃사업' 후원으로 매월 60여명의 정기후원자가 공동모금회와 연계된 계좌로 모금한 모금액으로 이번 행사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3회에 걸쳐 생필품사업을 실시했다. 12월 중에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4차 생필품 나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하반기 사각지대 전수조사 기간에 가정방문 대상 어르신 중 한 분이 "하루 한 두 끼 식사를 주로 하고 있으며 간단한 국을 곁들이면 반찬이 필요 없는데 장류가 비싸서 자주 먹지 못한다"는 의견을 듣고 관련회의를 통해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김상용 민간위원장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고추장과 사랑의 된장을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성포동

안전하고 낭만 있는 밤거리 '빛의 소리' 로고젝터



성포동 밤거리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활용한 로고젝터(Logojector, 빛글씨)를 설치해 안전하고 낭만적으로 바뀌었다. 성포파출서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성, 홍보성을 고려한 로고젝터는 신우연립 앞, 경일초등학교 앞 삼거리,

스타프라자 사거리 등 세 곳에 설치했다.

또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부드러운 문구를 마련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면서 동시에 어두운 거리를 화사하게 비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로고젝터는 가로등, 방범등, CCTV 등 기존의 전주를 활용해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 관리비용이 없어 경제성이 높은 범죄예방 기법이다.

송순복 동장은 "주민들께서 감성적이고 따뜻한 문구의 로고젝터가 귀갓길의 길동무 역할을 해줘 좋다고 한다"며 "예산관계로 세 곳에만 설치했지만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만큼 내년에는 추가로 여섯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로고젝터는 이미지 글라스에 안전문구나 그림을 LED 등에 투사시켜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를 비추는 일종의 빔 프로젝터 장치이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신길동

통장협의회,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실시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에너지 절약의식 향상 및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 안산 조성을 위해 통장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교육을 실시했다.

안산에너지절약마을추진협의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플라스틱과의 전쟁,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OUT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교육 강사는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쓰레기와 산업현장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은 지구온난화와 생태계파괴, 환경호르몬 등의 오염물질이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이 같은 교육을 통하여 전파하고 있다”며, “안산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등 에너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이해도가 매우 높은 에너지도시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은용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사용 가능한 쓰레기는 재사용하고, 쓰레기의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하는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가 다양한 방법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선부2동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선부2동 만들기' 캠페인 추진

선부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땃골마을 일대에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선부2동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고려인문화센터 '너머'와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땃골마을 주민 및 통장 20여명은 러시아어로 표기된 분리배출 전단지를 집집마다 돌려 부착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직접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땃골마을은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근 들어 심각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 골머리를 앓는 곳 중의 하나다.

캠페인에 참여한 해당지역 통장은 “땃골마을 일대는 쓰레기 불법 투기문제가 최근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캠페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학 선부2동장은 “이곳 땃골마을을 시작으로 캠페인 활동을 더욱 확대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선부2동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수동

호수동 통장협의회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안산시 사동119안전센터는 지난 9일 호수동 통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와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 단독 경보형 감지기 구입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사동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안산 주택화재 발생현황을 보면 화재 발생률과 인명 피해율에서 아파트보다 '주택'의 비율이 높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해창 호수동 통장협의회장은 “소액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작은 노력으로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소방시설 설치에 앞장서고 주변에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와동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사랑의 돈가스 판매 수익금으로 김장 나눔 봉사할래요

11월 12일 월요일 이른 아침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와동위원회 회원 20여명과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돈가스' 판매현장이 된 와동행정복지센터 옆 마당. 돈가스 튀김옷을 입히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손길들이 바쁘다.

오용주(51세) 회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침 7시부터 나와 일해도 하나도 힘든지 모르고 뿌듯해요. 10년 가까이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에 있을 김장봉사에도 함께할 생각입니다.”라고 했다.

이선희(57세) 위원장은 “김장철을 앞두고 독거 어르신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구에 김장김치와 쌀을 전하기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돈가스 판매를 준비했다”며 “회원이 모두 나와, 돈가스 맛있게 재우는 방법을 배우고 연구해서 돼지고기 300kg을 정성껏 마련한 만큼 목표한 금액을 달성해서 김장 나눔 봉사에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우리는 자랑스러운 안산시 학생 명예기자다!



전성호
(양지중학교)

그림 천재, 전서연! 그는 누구인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뛰어난 창의력과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켈란젤로, 피카소, 고흐 등 천재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보며 놀란다. 양지중학교에도 중학생이 그렸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가진 학생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림 천재로 소문난 학생이다.

2학년 4반 전서연. 그는 인터넷 서핑 중 한 일러스트레이터를 보고 감명을 받은 후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소질이 있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다.

전서연 학생은 주로 컴퓨터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이 드러나는 그림이나 창작 캐릭터를 그린다. 일반적으로 3시간에서 6시간까지 걸리는 긴 작업이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들을 그림동아리나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학생 그림 팀'도 조직해 애니메이션 만들기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그림대회를 나가 수상한 후 지금까지 여러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양지중학교 대표 캐릭터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했다. 또한 안산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서연 학생은 "오빠가 평소에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저도 항상 오빠처럼 되고자하는 마음으로 공부도 그림도



모두 열심히 하려 노력한다"며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애니메이터가 되는 것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고 좋아할 그림을 그릴 거예요"라고 했다.

최희원
(원일중학교)

원일중학교의 소·확·행, 그 현장으로!

날씨는 쌀쌀하지만 학생들 마음은 열기로 가득 차던 11월 2일. 원일중학교의 한마음 어울림 마당이 시작됐다. 매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주제로 축제를 열며, 이번에는 '소확행'이라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즐기자'로 정했다.

오전에는 학생회와 동아리가 준비한 각종 놀이 활동, 부스체험으로 이루어졌고 오후에는 동아리 발표회에 이어 학생들의 장기자랑 시간으로 진행됐다.

오전 부스체험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암흑상자에 손 넣고 물건 알아맞히기 등과 함께 각 동아리들이

준비한 각종 체험도 즐길 수 있었다.

오후 공연시간에는 댄스, 난타, 밴드, 연극부 동아리들이 준비한 공연들과 원일중 학생들의 랩 퍼포먼스, 노래, 점베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부모님들은 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맛있는 음식거리를 준비해 떡볶이, 소떡소떡, 어묵 등을 제공했다.

2학년 4반 채예은 학생은 "꽃반 등 다양한 놀이 부스가 재밌었고 원일분식의 음식도 맛있어서 축제가 더욱 즐거웠다. 공연을 통해 평소 친구들의 모습이 아닌 색다르고 맛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2학년 7반 박민성 학생은 "오랜만에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 좋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체험과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와동초, 기왓골 꿈동이들... "작은 날갯짓으로 꿈을 낚아요"

2018학년도 학급 학습결과 및 방과 후 학교 발표회 가져



와동초등학교(교장 차은숙)는 10월 31일 각 학급 교실 및 시청각실에서 와동 교육공동체 학급 학습결과 발표회 및 방과 후 학교 발표회를 진임순 학교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들과 함께 했다. 1~2교시에는 학생들이 주도해 학급축제를 이끌었으며, 방과 후 학교 참여 학생들은 작은 솜씨와 마음을 모아 창의 불력, 유니클레이, 나무 공작 등의 완성된 작품과 교육활동 장면을 전시했다. 또한, 전시가 어려운 활동형 방과 후 교육은 3~4교시에 해당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로 마련했다.

특히,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의 런웨이 베이비(Runaway Baby), 학교특성화 가야금, 방송댄스부의 파워업(Power up) 과 '별이 빛나는 밤', 벨리 댄스의 오리엔탈, 슬퍼부의 웃다리 사물놀이, 기타부의 '로망스와 언제나 몇 번이리' 발표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가야금부는 2018학년도 안산시 학생 예술제 최우수상, 사물놀이부는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강은 전교학생자치회장과 조하은 부회장은 사회를 보며 "부모님들이 학급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 자신감을 회복해 학생들이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나'를 친구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다"고 했다.

방과 후 발표회를 본 학부모들은 "와동초 학생들이 작은 날갯짓으로 꿈을 낚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그 꿈을 키우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된 것 같아 기쁘며, 올해도 잘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차은숙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나'를 표현하고 학생 주도 활동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늘 소통하고 공감하여 행복한 학교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조례안 18건 등 총 33건 의결... 24일 일정의 정례회 마무리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진, 박은경, 이경애, 김진숙 의원, 김동규 의장 순이다(사진 왼쪽부터)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1월 2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심의를 진행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며 24일 일정의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 18건과 동의안 5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안건 중에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도 포함돼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 따르면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 기획행정위원회 102건, 문화복지위원회 120건, 도시환경위원회 109건 등 총 338건이 시 사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지적됐다.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심의를 진행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주미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 것을 비롯해 총 11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같은 기간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종길)는 심사를 통해 안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포함 총 13

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나정숙)도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나머지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 가결했다.

앞서 10월 10일 구성을 마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희)의 경우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특위를 열어 2017 회계연도 결산과 2017 회계연도 기금 결산,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고,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으로 본회의에 넘겼다.

아울러 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진 박은경 이경애 의원이 시정질문을, 김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의회의 시각을 제시하고 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3차 본회의를 주재한 김동규 의장은 산회에 앞서 “안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정책 지향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산 및 안건심사에서도 다양한 부대의견을 주문했다”며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윤

석진, 박은경, 이경애 의원 등 3명이 시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김진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단상에 오른 의원들은 형식과 내용은 달랐지만 최근 대두되고 지역 현안에 대해 각자의 시각을 담은 날카로운 질의와 의견으로 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윤석진 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최근 시가 단행한 인사와 모 단체의 안산 와스타디움 대관 불허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짚었다.

시장과 문답을 이어가던 윤석진 의원은 결국 인사의 난맥상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동행하자는 당부의 말로 질문을 마무리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대책과 △자살 예방 및 시민정신건강 증진책, △시화호 बै길 운항시 수심 불리 조건 대책 및 선착장 조성 연계 계획에 대해 시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경애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 △안산시의 아동 정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아동 전문가 및 시민 목소리 반영 여부, △안산 아동에 대한 배려책 △즐거움 놀이터 도입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박은경·이경애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뒤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보충 질문을 실시하는 등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정질문에 앞서서는 김진숙 의원이 빌라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철저와 시화(市花)인 장미꽃 홍보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진숙 의원은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안도 함께 제시하며 발언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무리한 의회는 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7 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최종 의결했다.

안산시의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관련 건의안 ‘채택’... “현행 제도는 기본권 침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안산시의회(의장 김동규)가 11월 2일 열린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의회는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건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진숙 의원은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 국민이 더위와 싸우면서도 일명 ‘전기료 폭탄’이 걱정돼 마음 편히 냉방장치를 사용하지 못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권마저 침해됐다”면서 “그 고통의 원인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앞서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었고, 향후 다양한 요금 선택권 마련 등을 담은 단계적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누진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는 매년 반복될 것이므로 한시적 누진제 완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생존과 생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내가 안산을 사랑하는 이유

"제33회 안산시민의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안산이 시로 승격된 지 33년이 지났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시민의 날' 행사도 성대하게 진행됐다. 어느 도시, 어느 시민이나 마찬가지로 각자의 사연은 있기 마련이다.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도시는 도시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모두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안산시민으로서 '나는 안산에 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들의 목소리를 소개한다. 참고로, 안산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축하 인사는 지면 관계 상 한 줄로 마감한다.

도심 속에 크고 작은 공원과 녹지가 많은 안산! 내가 안산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

안산시에 정착해서 하나뿐인 딸을 키우며 보낸 시간 30여년. 안산에 처음 왔을 때의 시골스러운 옛 모습은 사라지고 대도시 발전한 걸 보면서 새삼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낀다. 난 안산의 모든 곳을 좋아하지만 그중에서도 딸과 함께 걸던 반월 공원을 특히 좋아한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딸이 힘들어할 때면 밤늦게 함께 걸던 그 거리와 그 공원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선하게 펼쳐지는 느낌이다. 그런 딸이 어느새 취업을 하고, 결혼까지 했더니... 하루하루 발전하며 바뀌는 건 안산만이 아닌가보다...

최근에도 종종 혼자 그 공원을 걷곤 한다. 운동 삼아 공원을 천천히 걷다 보면 가족과 함께 나온 분들이 꽤 보인다. 그 분들 또한 나와 같이 공원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있다는 생각에 나를 미소 짓게 한다.

도심 속에 크고 작은 공원과 녹지가 많은 안산, 안산을 사랑하게 만드는 이유다. 사

랑하는 사람과 걸으며 나는 소소한 이야기가 더 없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곳. 공원은 가족, 연인, 친구와 마음을 나누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그런 장소가 안산에는 더 없이 많으니 이곳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해 가지만 공원만은 늘 푸른 상록수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켜줬으면 한다.



• 최명숙

기다림이 추억이 된 장소, 버스 정류장



어느덧 15년... 내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안산에서 보내온 시간이 다. 내 나이가 34살임을 생각한다면 성인으로서의 모든 생활을 안산에서 보낸 것이다. 이젠 제2의 고향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안산. 넓은 도로와 쾌적한 산책로, 단골 식당과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들... 이젠 원래 살던 서울 보다 이곳이 더 편하고 좋다. 하지만 처음부터 안산 살아가 만족스러웠던 건 아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취업과 함께 시작한 안산 생활은 더 없이 외로웠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귀가해 먹는 혼술(맥주 한잔)도 그땐 더 없이 쓸쓸하게 느껴지곤 했다.(물론 현재는 내가 가장 즐기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시절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 중 하나는 안산식물원 앞 버스정류장이다. 서울에서 오는 301번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으로 그곳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아들이 배고플까봐 반찬을 싸들고 오시던 어머니를 기다렸고, 술한 잔 기울이면 수다를 떨기 위해 오는 친구들을 기다렸다. 또,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소녀를 기다리기도 했다. 외로움이 컸던 만큼 기다림을 더욱 설렘었고 그때 그 설렘은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안산을 찾는 지인들이 다 개인차가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의 기다림이 옛말처럼 낯설지만, 나는 아직도 안산식물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면 종종 그때가 떠올라 미소 짓게 된다. 제2의 고향인 안산! 제33회 안산시민의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처음왔을 때의 안산에 비해 지금은 많은 것이 발전하고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안산이 되길 기대합니다~^^

• 손현희

나의 '첫' 시화나래 달 전망대



아찔한 뒷 풍경이 보이시나요? 바로 시화나래 달 전망대에서 넓은 바다를 뒤로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저는 안산과의 인연이 막 100일이 된 풋풋한 시민입니다. 안산에서 일하게 되면서 안산의 매력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멋진 바다와 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국가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자랑거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진이 바로 안산의 시화호 '첫 방문'때 찍은 사진입니다. 워든 첫 경험은 잊을 수가 없잖아요. 깨질 것만 같은 투명한 바닥을 걸으며 온몸이 짜릿한 경험도 하고, 저 멀리 넓게 펼쳐져 있는 바다를 보며 복잡한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안산, 정말 살맛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 행복한 기억이 있는 안산 시화나래 달 전망대를 또 찾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른세번째 안산시민의 날 축하합니다!!

• 이연아



독자 투고

안산 인구·청년정책 시민 대토론회를 듣고

얼마 전 한양대에서 개최한 안산 인구·청년정책 시민 대토론회에 참관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은퇴자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일거리 문제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청년창업자, 은퇴자, 연금 소득자의 연계를 통한 창업 아이디어는 새로운 접근방식이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었다.

동생이 창업을 해서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일전에 안산시청에서 마련해 준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아카데미 덕분에 큰 도움을 얻었다고 했다. 창업 아카데미 실무교육에서는 창업 준비절차, 관내 마을가게 상권분석 활용법, 창업자금과 신용관리, 홈페이지 제작 요령 등을 배웠는데 매우 유익했고 창업에 큰 밑거름이 됐다고 한다. 은퇴자들은 퇴직금, 혹은 명퇴금으로 받은 돈 다 쏟아 부어 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매사에 신중하게 하되 철저한 분석과 정도에 맞게 하는 게 최우선일거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개인창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못하니 예비창업자, 은퇴자, 연금 소득자가 연계를 통한 방법도 중요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만큼 초기자본도 덜 들고, 무엇보다도 위험을 분산시키며 아이디어와 판로 공유 등 장점이 많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50% 이상이 1년 이내에 폐업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적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 닥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생계형 창업이다, 청년 창업이다, 중장년 창업이다'하며 다양한 창업들이 시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극소수만이 성공을 한다. 이번에 나온 여러 아이디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창업자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하면 은퇴를 앞둔 안산의 예비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신재민



독자 투고

해마다 이맘때면

행복한 사람은
시간에 관심이 없다는데
난 왜 가는 세월을 놓지 못할까

산토끼 몰던 태봉산에 낙조가 내리는
무술년 설날 그믐밤
뜬눈으로 지새우던 수세(守歲)* 에
눈썹 대신 머리만 하얀데
자꾸만 보채며 안부를 묻는구나.

협계열차가 달리던 수인선 따라
안산의 미래와 꿈은 커가고
고잔국민학교 자리는 시청이 된 지금
고잔역 송악방과 한일여인숙은
까마득한데
성포리 딸기밭은 단원(檀園)의 풍속화
에 묻혀있나
형클어진 추억의 퍼즐을 맞추느라
그만 자정을 넘긴 시간

정조임금도 칭송했다는 안산은
공업단지와 바다까지 아우르며
지칠 줄 모르고 달려가는데
온 세계의 다문화가족까지
따뜻이 보듬고 살아가는
넉넉하고 편안한 안산이
그래서 좋은가보다

시화호 뱃길 따라
기해년 돼지해가 오는 길목
내 인생도 내가 모르는데
가고 오는 해를 내가 어찌랴

고맙다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아,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지.
모두가 웃으며 더불어 행복하자
브라보 안산!

• 박정덕

* 수세(守歲): 음력 설날 그믐날 밤에 집 안 구석구석에 등불을 밝히고 밤을 새우는 일. 또는 그런 풍습. 이날 밤에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한다.



나비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기이름: 박도하 (남)
출생년월: 2018년 5월
태명: 열매 태몽: 잉어



우리 아기천사 도하예요^^
우리 도하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있답니다.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좋다고 까르르 웃어요
너무 순해서 사람들이 어쩔 그렇게 순하냐면서 놀라워해요
태교도 제대로 못해주고 뱃속에 있을 때 잘 챙겨먹지도 못해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어났을 때 몸무게 2.45kg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너무너무 잘 먹여주고 잘 싸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지금은 생후5개월만에 9kg이 되었어요^^
비록 영유아 건강검진 때 비만주의가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 도하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지금처럼만 잘먹여주고 건강하게만 자라줘^^사랑해 도하야!



독자 투고

세월

꽃피고 지고 이내 용광로 더위가
온 몸을 지치게 했다
잠시 눈을 감고 한 숨 쉴 때
어느새 삭풍이 몰아치는가

지금 영하의 냉기가 스며 든다
흐르는 게 물이고 또 흐르는게
세월이지만 이다지도 빨리 흐르는가
일촌광음* 이 너무 무섭다

언젠가 숨죽인 나무가
새잎을 돋구면

잠시 떠나간 봄이 오는가
여름이 오는가
그리고 가을이 오는가 겨울이 오는가
겨울 앞의 내 모습
분장한 배우로 등장한다

세월이 약이라는 노랫가락이 들린다
그래 약이어도 좋다 잠시 휴식하고
시계추를 정지시키라는 나의 기도,
기도여

• 박재옥

* 일촌광음(一寸光陰): 매우 짧은 동안의 시간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 11.02. ⇨ TV조선_네트워크뉴스 '복합해양레저단지 조성'
- 11.02. ⇨ t-broad(한빛방송)_정책브리핑 '안산시장 편'
- 11.17. ⇨ OBS 경인TV_OBS 초대석 '취임100일 특집 대담 및 유럽 방문 성과'



브라보안산 시민 만족도 설문조사

- ◇ 기간 : 2018. 11.14.~12.5.(21일간)
- ◇ 참여방법 : 홈페이지 방문
 - 안산시청(www.ansan.go.kr)
 - e-브라보안산(www.bravoansan.net)
- ◇ 문의 : 안산시 공보관(031-481-2042)
 - ※ 응답자 중 40명을 추첨하여 1만 2천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안산시 에너지절약 웅변대회

- ◇ 일시 : 2018. 12.8.(토) 11시~16시
- ◇ 장소 : 상록구청 상록시민홀
- ◇ 대상 : 안산시 관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
- ◇ 접수 : 2018. 11.30. 18시까지
 - e-mail접수 (ss10041004@hanmail.net)
- ◇ 문의 : (사)대한웅변협회 안산시지부(031-487-6709)

수도계량기 동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파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전에 계량기실을 점검하여 갑작스런 추위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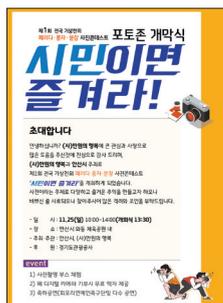
(주간 031-481-2037 / 야간 031-481-371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전국 일제단속 및 점검 실시

- ◇ 점검기간 : 2018. 11.12. ~ 12.11.
- ◇ 점검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중 주차불가 차량 및 주차방해 차량
- ◇ 조치사항 : 주차불가 차량은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차량은 과태료 50만원
- ◇ 문의 :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5)
 - 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65)

사진콘테스트, 시민이면 즐겨라!



- ◇ 일시 : 2018. 11.25.(일) 10시~14시
- ◇ 장소 : 와동 체육공원 내
- ◇ 내용 : 기상천외 패러디·풍자·분장 사진콘테스트
- ◇ 문의 : 만원의행복 사무총장 (010-9442-4623)

제 409차 민방위의 날

전국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 일시 : 2018. 11.27(화). 14:00~14:20
- ◇ 장소 : 안산시 전역
- ◇ 내용 : 화재대피훈련, 국민행동요령 교육
 - ※ 교통통제(주민이동통제) 미실시

2018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 ◇ 기간 : 2018.11.30.~12.1.
- ◇ 장소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라이언스 홀
- ◇ 내용 : 마을활동가 교류회, 기획전시, 공연 등
- ◇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안산시여성합창단

제31회 정기연주회

- ◇ 일시 : 2018. 11.27(화). 19:30
- ◇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2068)

책 읽는 안산 / 11월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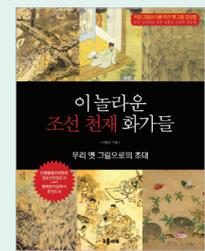
이달의 주제 『오다가다 본 그 그림들』



루브르 박물관보다 재미있는 세계 100대 명화

저자 박현철 / 출판사 삼성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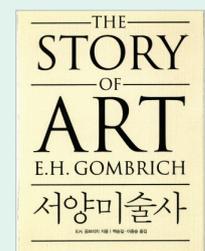
명화는 잘 그려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림을 말한다. 전 세계의 수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느낌, 생각,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피카소까지 시대와 나라를 넘나들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70여명의 화가와 100점의 작품을 선정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놀라운 조선 천재 화가들

저자 이일수 / 출판사 구름서재

전시 기획 감독 이일수가 들려주는 가장 쉽고 명쾌한 우리 미술 감상법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로 손꼽히는 안견, 신사임당, 정선, 김홍도, 신윤복, 장승업을 주인공으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과 사회 분위기, 생활 풍습, 화가들의 개인사, 그림의 내력 등을 작품과 연결시키며 우리 옛 그림에 대한 이해를 길러준다.



서양미술사

저자 E.H.곰브리치 / 출판사 애경

19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800만부 이상 판매된 책. 서양미술을 알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책이다. 미술이라는 분야에 처음 입문하여 약간의 이론적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적이기 때문이다. 선사시대 동굴벽화부터 실험적인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제를 다루고 있고, 미술사를 통틀어 위대하고 뛰어난 작품들을 각 페이지마다 시대와 양식, 작품명, 작가명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료제공 _ 중앙도서관

/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

작은 나눔으로 큰 기쁨을 누리세요!

나의 형편과 방식에 맞게 **기부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내게 필요없는 물품은 **기증하고!**

이미 여러분은 **훌륭한 나눔인입니다.**